‘○○○선거펀드’에 투자 하실래요?

유권자로부터 자금 조달 새 정치 실험 ‘눈길’

유시민·이병완 ‘대박’… 광주서도 성공 가능성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펀드’가 열풍이다. 대박을 터트린 ‘유시민 펀드’에 이어 ‘이병완 펀드’도 나흘 만에 목표액인 5억 원을 눈 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참여당 광주시장 예비후보인 이병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판매에 나선 ‘이병완 펀드’가 나흘째인 29일 현재 5억1985만 원의 약정금을 유치, 펀드를 마감했다.

‘이병완 펀드’는 법정 선거비용을 시민과 지지자들의 힘으로 조달하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모집해왔다. 30만 원 이상부터 약정할 수 있고, 오는 8월10일 원금뿐 아니라 양도성 예금증서(CD)금리인 연 2.45%(4월26일 기준)의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준다. 이날 현재 328명이 이병완 펀드에 가입했다. 이중 50%가 광주시민이고, 나머지는 서울과 전남·울산·경기·부산·충청 등 전국에서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선거캠프 김요수 대변인은 “대다수가 30만~100만 원 사이에서 투자했고, 일부는 1000~2000만 원, 최고 3000만 원까지 투자한 통 큰 투자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가 펀드를 모집하는 것은 광주시장 선거비용 제한액 7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본선에 대비해 최대 7억 원까지 동원할 수 있는 선거비용을 모아두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은 5억 원까지만 모집하고 펀드를 마감할 예정이다.

7억 원까지 빌려쓰지 않아도 본선에서 충분히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5억 원 조달시 이자로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연 1245만 원 정도다. 약속대로 4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돌려줄 경우 실제 이자비용은 400만 원 수준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자금 100%를, 그리고 10~15% 사이의 득표를 할 경우에는 선거자금의 50%를 보전해준다. 이 돈이 원금 상환의 재원이다.

따라서 이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유효투표 15% 이상을 득표하게 되면 400만 원의 이자비용만을 들이고 선거를 치르는 셈이 된다.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보전금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5월부터 가동되는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 이 돈으로 투자원금을 돌려준다는 것이 이 후보의 복안이다.

이에 앞서 국민참여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유시민 펀드’로 경기지사 법정 선거비용(40억7300만 원)을 초과한 41억 원을 모았다. 판매 4일 만에 이룬 성과다.

현재 ‘이병완 펀드’는 ‘유시민 펀드’의 10% 수준에 불과하지만, 경기도와 광주시의 경제규모가 다른 만큼 광주를 중심으로 한 ‘이병완 펀드’도 사실상 대박을 낸 셈이다.

유권자에게 돈을 빌려 정치하는 새로운 정치 실험이 광주에서도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與 ‘김무성 카드’로 후반기 정면 돌파

한나라 새 원내대표로 사실상 확정

이병석 사퇴… 내달 의총서 공식 추대

김무성 의원이 29일 한나라당의 차기 원내대표로 사실상 확정됐다.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했던 친이계 이병석 의원이 29일 사퇴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날 김무성 의원과의 간담회 직후 국토해양위원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름다운 경선보다 아름다운 양보를 택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원내대표 경선 도전을 선언했던 정의화 최고위원, 황우여 의원, 이주영 의원 등도 이미 김 의원의 추대에 공감하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내달 4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신임투표 형식을 빌려 새 원내사령탑으로 사실상 합의추대될 것이 확실시된다.

김 의원이 원내사령탑으로 ‘무혈입성’한 것은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를 주도할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다고 평가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천안함 사건, 세종시 논란, 개헌 등 굵직굵직한 정치적 현안들이 산적해 정치력과 돌파력을 겸비한 인물이 절실했다.

그런데 김 의원은 ‘친박 좌장’으로 활동하면서 친박계 내에서 나름대로 지분을 갖고 있는 데다 친이계와도 두터운 관계를 형성하는 등 당내 양계파인 친이·친박을 두루 아우를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이 때문에 여권 핵심부는 그동안 수차례 ‘김 의원 원내대표 카드’를 고려해 왔다는 후문이다.

당 관계자는 “김무성 카드는 화합과 단결을 고려한 측면이 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당이 단합된 힘으로 집권 후반기 난국을 정면 돌파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4선의 김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 문하생이자 민주화 투쟁에 앞장서 온 ‘정치권 마당발’로 야권 인사들과 교분이 두터운 것도 새로운 여야 관계 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의원이 원내대표로 확정될 경우 그가 떠안아야 할 숙제는 결코 만만치 않다.

당장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지방선거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가 한나라당에 쉬운 승부가 아니다.

지방선거 이후에는 세종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이 확실시된다. 친박계의 반대가 여전한 상황에서 김 의원이 어떤 절충점을 만들어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외에도 개헌, 천안함 사건 등도 여권에 부담스러운 사안이다. 개헌만 하더라도 친이계는 ‘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분산형 개헌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박근혜 전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등 입장차가 적지 않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선거범죄 0% 투표참여 100%

장흥 283개 마을 도전

장흥군내 283개 마을이 ‘선거범죄=0% 투표참여=100%’에 도전한다. 이른바 ‘제로-백 운동’이다. 6·2 지방선거를 맞아 펼쳐지고 있는 이 운동은 돈 선거를 막고 투표율을 높여 튼실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장흥군선관위는 29일 “풀뿌리 자치를 튼튼하게 뿌리내리게 하려면 깨끗한 선거, 활발한 투표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관내 283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이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선거범죄, 투표참여율,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등을 평가해 상위 23개 마을을 뽑아 마을당 50만 원의 상금을 줄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 자금 수수, 선거인에 대한 향응 제공, 비방·흑색 선전, 공무원 조직적 선거개입, 불법 사조직 설치 등의 5대 중대 선거범죄 위반행위주민이 거주하는 마을과 투표율이 65% 미만인 마을, 최종점수 40점 미만 마을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 기자

국민참여당 광주시당은 29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시당 사무실에서 광주지역에서 6·2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를 가졌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참여당, 광주·전남 기초장·지방의원 후보 경선

국민참여당의 광주·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및 지방(광역·기초)의원 후보 경선이 본격화됐다.

국민참여당 광주시당은 28~29일 이틀간 광주지역에서 6·2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를 했다.

이번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투표는 송병태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를 비롯한 11명의 지방의원 출마자들에 대한 찬반투표 형식으로 치러졌다. 개표 결과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투표는 인터넷 온라인 투표와 광주시당 사무실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 방식으로 시행됐다. 광주시장 후보는 무소속 정찬용 후보가 30일 국민참여당에 입당함에 따라 다음달 초 이병완 후보와 시민참여경선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참여당 전남도당도 29일 여수시장 후보에 강용주, 광양시장 후보에 박형배, 완도군수 후보에 이경구 예비후보를 확정했다. 또한, 전남도의원 후보로 여수시 5선거구에 오병선, 광양시 1선거구에 정회기 예비후보를 확정했다. 기초의원 후보로는 ▲박정례(여수시 나 선거구) ▲이완용(여수시 다 선거구) ▲장대흥(여수시 마 선거구) ▲김종길(여수시 사 선거구) ▲심재수(여수시 아 선거구) ▲전창곤(여수시 자 선거구) ▲강동수(광양시 라 선거구) ▲장상섭(목포시 사 선거구) ▲김세중(진도군 가 선거구) 예비후보를 각각 확정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원내대표 경선 ‘빅3’의 선택은

향후 정치일정 영향… 막판 밀어주기 할 수도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당의 대권주자인 정세균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 정동영 의원의 의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봉균·김부겸·박병석·박지원·이석현 의원 등 5명의 후보 모두 선두그룹이라고 주장하는 혼미한 양상 속에서 세 사람의 선택에 따라 승부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후보 캠프 주변에서는 ‘누가 누구를 민다’ 식의 주장과 관측이 난무하고 있다.

손 전 대표의 경우 김부겸 의원을 지원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 대표와 정 의원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표심이 읽히지 않고 있다.

정 대표는 29일 현재까지 중립을 표방하고 있다. 정 대표의 한 측근은 “지난 원내대표 경선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중립”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 대표가 비주류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봉균·이석현 의원을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머지 세 후보에 대해 중립을 지킨다면 표를 나눠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한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박병석·박지원 의원 중 한 명이 될 것이란 게 정 대표 주변의 분위기다.

정 의원의 경우 비주류의 핵심으로 활동하고 있어 강봉균·이석현 의원 중 한 명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지금까지 정 의원은 “나도 찍고 나서야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주류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주류를 지원할 까닭이 없기 때문에 선거 막판에는 가장 경쟁력 있는 비주류 후보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 대표의 경우, 김부겸 의원을 지원할 것이란 일반적 전망과 달리 다른 후보를 밀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출신, 중도개혁 성향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당내 외연 확대를 위해 김부겸 의원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호남에서 외연 확대를 위해서는 박지원 의원, 충청권의 지지층을 넓히기 위해서는 박병석 의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표를 분산시켜 지원할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세 사람 모두 극도로 말을 아끼며 경선에서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하지만, 막판에 가서는 이들 모두 막후에서라도 선거 개입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가 전대, 더 나아가 총선을 앞둔 이들과 자파 입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선거차량

음향차량,LED차량(1.5t,2.5t,5t)

선거홍보물
기획/제작/시공대행
www.jwad.co.kr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광고대행사
주|정원애드 062)382-2285

토지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I.C 입구)
▷ 동신대 ~ 나주I,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건물 2,000㎡·토지 3,000㎡ 이상 부동산개발(건축허가등)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여야 등록 가능!!

◆교육일시 및 장소
- 2010.05.27.(목) ~ 2010.06.01.(화) / (총 60시간 강의)
- 광주대학교 국기관 3층 305호

◆교육대상

구분	전문인력의 유형
자격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건설기술자(학경력자포함), 자산운영관리인력 등
학·석사 학력자	4년제 대학 졸업학력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발업법인 등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금융기관 중 개발업무 경험 종사자, 개발업 관련 법인 대표자 등

※ 수강하고자 하는 분들은 등록 전 수강자격 등에 대하여 사무국으로 문의바람

◆교육비
67만원 (교재 및 간식 등 제공, 강의를 시작한 이후 환불은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gred.kr 참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문의/전화 www.gred.kr
• 원장 이명규교수 062-670-2421
• 부원장 강동욱변호사 062-233-3119
• 사무국 김병철 062-233-3119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대출

◆ 마니또론 신용대출
- 직장인, 전문직, 사업자, 프리랜서등
- 추가대출, 대환대출, 채무통합, 신규대출
(7.5%고정금리로 4년분할상환)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 아파트론 -無담보 아파트대출
- 근저당설정없이 추가대출가능
- 소득증빙無, 무직자, 주부도 가능

소액필요한데
근저당설정하기 귀찮으시죠?
하나캐피탈 아파트론
이용하세요

하나캐피탈은 하나은행과 한가족입니다!
www.hanacapital-manitoloan.co.kr
하나금융그룹 공식상담사 안광호 팀장
☎ 010-4041-1121
위 상담사는 여신금융협회에 정식등록된 상담사입니다